

신태용, 위기의 한국 축구를 구하라

러 월드컵 대표팀 감독 선임...본선까지 책임

대한축구협회가 2016 리우 올림픽 대표팀과 U-20 대표팀을 이끌었던 신태용(47) 감독에게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빨간불이 켜진 축구대표팀의 '소방수' 역할을 맡겼다.

축구협회는 4일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제6차 기술위원회 회의를 열고 울리 슈틸리케 전 감독의 경질로 공석이 된 대표팀 사령탑에 신태용 감독을 선임했다.

김호곤 기술위원장은 "신태용 감독과 계약 기간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본선까지"라며 "월드컵 최종예선 2경기를 치른 이후에 조 3위가 되더라도 플레이오프 때까지 신 감독에게 경기를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시간여 회의를 통해 기술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라며 "신 감독은 대표팀 코치를 지내 현재 대표선수들을 잘 알고 있다. 여기에 원활한 소통 능력을 갖춘 히트러진 대표팀의 응징력을 끌어올리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 감독은 울리 슈틸리케 감독 경질 이후 지휘봉을 넘겨받아 두 차례 남은 월드컵 최종예선전을 통해 한국 축

구의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게 됐다. 신 감독은 2016 리우 올림픽에서 한국 올림픽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고 8강 진출을 이끌었다.

지난달 끝난 2017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도 U-20 대표팀 사령탑을 맡아 16강 진출에 성공하며 지도력을 인정받은 지도자다.

'슈틸리케호'에서도 코치를 맡았던 신 감독은 2009년 프로축구 K리그 성남 일화(현 성남FC)를 이끌고 K리그와 FA컵 준우승을 차지했고, 2010년 성남을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이끈 바 있다.

특히 2016년 리우 올림픽과 U-20 월드컵 때도 전임 사령탑의 도중하자로 중간에 지휘봉을 잡아 특유의 공격 축구로 좋은 성적을 내면서 '특급 소방수'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신 감독은 리우 올림픽과 U-20 월드컵에서 다양한 공격 전술을 앞세워 팬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수비 조직력 운용에는 약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수비 전술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U-20 대표팀

축구 국가대표팀 신태용 감독 프로필

출생	1970년 10월 11일 경북 영덕
현역 포지션	미드필더
별명	피들이
경력	1986 U-16 청소년 국가대표
1988	U-19 청소년 국가대표
1992	바르셀로나올림픽 국가대표
1992~2004	프로축구 성남 일화 천마 소속
2005~2008	호주 퀸즐랜드 로우 코치
2008~2012	프로축구 성남 일화 천마 감독
2010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
2011	FA컵 우승
2015	AFC 아시안컵 코치(준우승)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동아시아인 코치(우승)
2016	국가대표팀 코치, AFC U-23 챔피언스 준우승 FIFA U-20 축구 대표팀 감독

이나 올림픽 대표팀은 성인대표팀은 다르다"라며 "신 감독도 이점을 인지하고 있다. 조직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기술위원회가 신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비력을 안정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구협회는 새로운 대표팀 코칭스태프 구성을 신 감독에게 일임하기로 했고, 연

봉 등 세부조건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오는 8월 31일 이란과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9차전을 치르는 대표팀은 8월 28일부터 소집훈련에 나선다. 신 감독은 이에 앞서 8월 21일 이란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월드컵 9회 연속 본선 진출이나 32년 만의 예선 탈락이나 '기로'

'신태용 체제' 급속 재편

21일 대표팀 명단 발표

28일 첫 공식 소집훈련

축구대표팀의 새 사령탑이 선임되면서 한국 축구는 이제 슈틸리케호에서 '신태용 체제'로 급속히 재편하게 됐다.

'신태용호'의 모든 일정은 월드컵 최종예선 마지막 두 경기에 맞춰져 있다. 8월 31일에는 이란과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9차전, 9월 5일에는 우즈베키스탄과 마지막 경기가 남아 있다.

한국은 현재 A조에서 이란(승점 20)에 이어 2위(승점 13)다. 3위 우즈베키스탄(승점 12)과는 불과 1점, 4위 시리아(승점 9)와도 4점 차이다.

남은 두 경기에 한국 축구의 운명이 결정된다. 월드컵 9회 연속 본선 진출이냐, 32년 만의 예선 탈락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조 2위 이내에 들면 본선에 진출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힘들어진다. 이란과 경기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58일.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이를 위해 내달 21일 새로운 체제의

대표팀 명단이 발표된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28일 공식적인 첫 소집 훈련을 갖는다.

선수 선발에 앞서 신 감독은 새로운 체제를 이끌어가기 위해 우선 코치진부터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울리 슈틸리케 전 감독 시절에는 4명의 코치가 있었다.

카를로스 아르무아(68) 코치가 슈틸리케 전 감독과 출근 함께했고, 정해성(59) 수석코치와 설기현(38), 차상광(54) 골키퍼 코치도 힘을 보탤다. 아르무아 코치는 슈틸리케 전 감독과 함께 대표팀을 떠났다. 정해성 수석코치도 신 감독이 들어서면서 자리를 비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을 대신해 신 감독과 손발을 맞췄던 코치들이 중용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리우올림픽 출전 당시에는 김기동(45), 전경준(44), 이운재(44) 코치가 있었다. 신상규(33)와 플라비오(68)는 피지컬코치를 맡았다.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신 감독은 전경준, 공오(43), 김해운(44) 코치를 뒀다. 플라비오와 우정하(37) 코치는 피지컬을 담당했다. /연합뉴스



이명기



김선빈

1·9번이라 쓰고 '공포 타순'이라 읽는다

KIA 1번 이명기·9번 김선빈 두자릿수 득점 신기록 달성 특급 역할



공격형 톱타자 이명기
타율 0.351 '전체 7위'
재치있는 작전 수행
'테이블 세터'가 해결사로

두 자릿수 득점 신기록을 달린 '호랑이 타선'의 특별한 힘은 1번과 9번이다. 2017 KIA 타이거즈 타선을 대하는 상대 투수들의 심정은 '쉬어갈 곳이 없다'이다.

시즌 전부터 소문이 자자했던 막강 타선, 사람들의 눈길은 '김주찬-최형우-나지완'의 클린업 트리오에 쏠렸다. 이범호까지 더해진 확장 클린업 트리오에 다양한 자리에 배치할 수 있는 안치홍과 김선빈까지 묶어 화력이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였다.

막상 투쟁을 열어본 공격력은 예상과는 조금 달랐다.

전력의 변수로 꼽혔던 버나디나가 허무하게 타석에서 물러나기 일쑤였고, 지난

시즌 타선을 이끌었던 두 축 김주찬과 이범호도 깊은 부진에 빠져 곳곳에 빈틈이 생겼다. 그러나 봄이 지나고 여름이 무르익어 가면서 KIA의 화려해 뜨거워졌다.

두 자릿수 득점 신기록 경신에는 부진 3인방이었던 버나디나, 김주찬, 이범호의 각성이 있었다. 이들의 도약도 도약이지만 '호랑이표' 공격 완성에는 특별한 1번과 9번이 있다.

버나디나가 처음 맡았던 1번 자리는 요즘 이명기가 책임지고 있다. 이명기는 올 시즌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름이다. 그러나 트레이드를 통해 SK에서 KIA 선수가 된 이명기는 공격형 톱타자로 맹활약하고 있다.

4번같은 9번 김선빈
타율 0.378 '전체 1위'
'가장 선호하는 자리'
밀고 당기고 안타 또 안타

이명기는 4월 경기 전까지 0.351의 타율로 전체 7위에 오르는 등 때론 방망이로 포문을 열고 있다. 가장 앞에 서서 많은 타석을 소화하고 있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뛰고 재치있게 작전을 수행하면서 톱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부지런히 나가고 뛰는 전형적인 톱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는 직접 해결사로 나서려고 하는 공격형 톱타자이기도 한다.

이명기는 "주어진 자리가 그런 만큼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가장 욕심 나는 부분은 타점이다. 기회가 오면 내가 해결하고 싶다. 올 시즌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주자가 있어도 자신 있게 공격을 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기회가 오면 망설이지 않는 1번 타자로 시작하는 KIA 타선은 리그 최강 타자가 버티는 9번으로 완성된다.

공격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자리로 이야기되는 9번은 '작은 거인' 김선빈이 책임지고 있다. 강한 2번과 7번 등 어느 자리에도 잘 맞는 김선빈은 신기록 행진을 하는 동안 9번에서 타격 실력을 뽐냈다.

"9번에서 공격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며 김선빈이 가장 선호하는 자리 역시 9번이다. 김선빈은 0.378의 타율로 전체 1위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다. '급방 내려갈 자리'라던 김선빈의 겸손한 소감과 달리 처음 1위에 이름을 남겼을 때보다 타율이 올랐다.

힘난한 중심 타선과 이범호를 넘어가면 밀고 당겨서 안타를 쓸어 담는 김선빈이 기다린다. 9번 김선빈으로 타선이 시작돼도 기회가 오면 치겠다는 1번 이명기를 시작으로 김주찬과 버나디나가 버티고 있다. 상대 입장에서 기가 막히는 9번이다.

타선의 시작점과 마침점에서 공격을 밀고 끄는 이명기와 김선빈으로 뜨거운 KIA의 여름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북아일랜드 천재' 니얼 맥긴 영입

힘·스피드·결정력 갖춘 특급 공격수...기성용 전 동료

광주 FC가 위기 탈출을 위해 특급 외국인 공격수를 소방수로 투입한다. 광주가 4일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 애버딘에서 활약한 북아일랜드 국가대표 공격수 출신 니얼 맥긴(29·Niall McGinn)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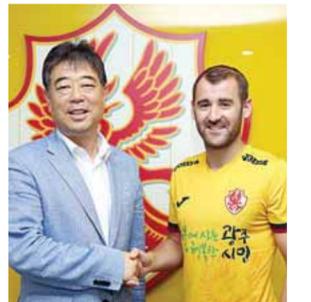
178cm, 73kg의 다부진 몸을 지닌 맥긴은 힘과 스피드, 결정력을 두루 갖춘 전천후 공격수다. 양발을 사용하는 그는 전방과 측면 공격을 모두 소화한다.

이력도 화려하다. '북아일랜드 축구천재'로 불리며 19세에 국가대표에 발탁, A매치에서 50경기 3골 5도움을 기록했다. '유로 2016' 우크라이나전 웨기폴로 북아일랜드의 사상 첫 16강 진출에 혁혁한 공을 세웠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센추리 클럽(A매치 100경기) 가입 경기였던 2014 브라질월드컵 예선전에서 선제골을 날기도 했다.

2008년 북아일랜드 1부리그 데리시티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맥긴은 셀틱, 브렌트퍼드, 애버딘을 거치며 330경기 85득점 62도움을 기록했다. 특히 애버딘에서의 활약은 폭발적이었다. 2012-2017까지 5시즌 동안 4시즌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하며 68골 54도움을 남겼다.

K리그 사상 첫 북아일랜드 출신 선수가 된 맥긴은 기성용·차두리와 셀틱서 한솥밥을 먹은, 한국 축구팬들에게도 익숙한 이름이다. 맥긴은 2010-2011시즌 10라운드 세인트존스톤 원정에서 기성용, 차두리와 선발 출전에 멀티 골(차두리 1도움)을 기록하기도 했다.

맥긴은 광주 K리그 클래식 잔류를 위해 선택한 특별 카드이다. 기성용과 광주 FC 단장이 정원주 대표와 상의해 직접 북아일랜드까지 건너가 맥긴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오랜 기다린 끝에 이적이라는 결과는 만들어냈다.



기성용(왼쪽) 단장과 니얼 맥긴.

맥긴은 "구단의 적극적인 관심에 한국행을 선택했다. 팀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다. 동료들과 즐겁게 경기하고 싶다"며 "새로운 도전이다. 팀과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광주 기성용 단장은 "맥긴은 광주 창단 이래 최고의 커리어를 가진 외국인 선수다. 반드시 K리그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라 기대한다"며 "스코틀랜드 시즌이 끝났지만 지난날 월드컵 예선전에 나서는 등 몸 상태는 나쁘지 않다. 빠르게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맥긴의 영입으로 화제를 모은 광주는 9일 다시 한번 이슈의 팀이 된다.

이날 국가대표팀 '캡틴'이자 광주 FC 개인 최대주주인 기성용(28·스완지시티)이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찾는다. 이날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는 광주와 FC 서울의 경기가 열린다. 기성용은 고향팀이자 아버지가 단장으로 있는 광주와 자신의 친정팀인 서울의 경기를 관람할 예정이다. 옛 동료 맥긴과의 만남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동강대, 창단 7년만에 대학축구 16강 올라

동강대학교(총장 김동욱) 축구부가 창단 후 7년 만에 처음 16강 고지를 밟았다.

동강대는 지난 3일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제13회 1·2학년 대학축구대회' 세경대와의 32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6-5 승리를 거뒀다. 90분 동안 한 골씩 넣으며 승부를 가리지 못한 두 팀은 승부차기가는 혈투 끝에 희비가 엇갈렸다.

동강대는 이번 대회 16강에 오르며 앞선 22강이라는 팀 최고 성적을 다시 썼다. '골잡이' 봉대현(1년·MF)이 예선 3경

기를 포함해 32강전에서도 득점포를 가동하는 등 4경기 연속 득점으로 16강의 주역이 됐다.

예선에서 2승 1패, 조 2위로 32강 본선에 진출해 16강을 이룬 동강대는 5일 오후 4시 15분 배재대를 상대로 8강 무대에 도전한다.

박승수 감독은 "창단 첫 16강 진출이 너무나 기쁘다"며 "선수들 컨디션도 괜찮고 승리에 대한 의지도 강해 더 좋은 성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